

JP칼럼 "일요 화가"

“내가 천국에 가면 최초의 백만원은 그림을 그리며 지낼 작정이다.” 윈스턴 처칠 경의 위트 섞인 술회述懷이다.

선명한 색채를 그렇게도 좋아했던 낭만인浪漫人 처칠, 그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다운 동기에서였다. 1차 대전 중 실각失脚한 40세의 처칠은 번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공원 일隅에 화가畫架를 차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몰라 잔뜩 찌푸린 채 우거진 수목 사이로 창공만 바라본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한 귀부인이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 초심자初心者를 지도하게 된다. 이 귀부인이 바로 처칠이 사사師事하게 되는 당대 화단畫壇의 거장 ‘씨 존 라베리’ 부인이었다. 우연이나 기우杞憂는 때로 엉뚱한 천재를 발굴해낸다.

내가 그림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일이지만, 처칠이나 아이젠하워의 흉내를 낸 것은 물론 아니다. 서울일요화가회원들의 청으로 명예회장이 되면서 기왕이면 그려볼까 하는 충동이 유화필油畫筆을 들게 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비교적 다양한 취미라서 그림도 꽤 좋아했다. 그러나 중학시절에 수채화를 그려본 후로는 화필을 잡아보지 못했다. 캔버스를 처음 대했을 때는 정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거장 이마동 선생이나 박광진 교수 지도로 몇 장을 그리는 동안에 극히 기초적인 필치를 익혔지만, 그림 그리기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부산·광주에 일요화가회가 있는데 약 2백 명의 아마추어 화가들이 매 일요일 태양빛과 대기 속에서 그림에 열중한다. 이들은 연말이 되면 자선전시회를 열고 매상금賣上金으로 고아원 또는 양로원을 돕는다. 재작년 여름 정계를 떠난 한가閑暇를 타서 일요화가 몇

분과 스케치 행각에 나섰다. 강릉 해변에서 오래 전부터 그리고 싶었던 파도를 그리고 있을 때 현장까지 찾아온 모 일간지 기자가 “개인전을 열어 호남 한해旱害지역에 의연금으로 기증하면...” 하기에, “내 그림을 도대체 누가 사 주겠소.” 하고 웃어 넘겼었다.

서울에 돌아온 나는 나의 개인전이 기정사실로 지상紙上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알고 문자 그대로 대경失色大驚失色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 하는 수 없이 9월 하순에 신문회관 회관에서 ‘한재민旱災民 구호 자선회화전’이란 간판으로 16점을 가지고 5일간 전시했던 바, 의외에도 협찬해주는 각계 유지가 많아 도합 5백만 원이나 각출齎出되어 그 상황에 또 한 번 놀랐던 것이다.

이 금액은 피해가 가장 심한 부락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나는 전남 도伯의 의견에 따라 전남 나주군 동강면 진천리 부락에 직접 내려가서, 전시회 경비를 공제한 4백5십만 원을 부락 대표에게 전달했다.

閑中 취미로 그린 拙作 몇 점이 가뭄에 시달린 마을을 살린 喜悅

그 후 부락에서는 1백64호의 지붕을 기와로 개량하고 도정공장搗精工場을 마련하는 한편 논 만평을 구입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금은 아동들의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붕개량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벚짚은 가마니 짜기에 활용하여 부락민들의 부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작년 가을, 첫 수확이라면서 백미 세 가마를 보내 왔기에 재건되고 화기와氣에 찬 이 부락민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그 답례로 마을문고를 설치해 주었다. 나의 한중閑中 취미로 그린 졸작 몇 점이 그와 같이 흐뭇한 기반을 이룩한

것은 근자에 없었던 희열이 아닐 수 없다.

그리는 것 그 자체를 유락愉樂으로 삼아 창조란 상상의 도약이기보다는 고심참담의 정수

나의 경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곧 유유자적悠悠自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내 안막眼膜에 비치는 사상事象을 그저 재현해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것도 아니다.

그림은 묘하다. 그러보면 볼수록 요연遙然하고 원유遠幽를 더하는, 알 것 같으면서도 포착하기 힘 드는 그 무엇에 한없이 끌려드는 걸 깨닫는다. 마치 인생 여정과 같다.

일요화가란 필경 그림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리는 것 그 자체를 유락愉樂으로 삼는다. 즐겁게 그리는 것, 그건 일요화가들에 있어 잠시나마 생활기반生活羈絆으로부터의 해방이요 권리 같은 것이기도 하다. 불안에 가득 찬 현대의 위기의식 속에서 탈출을 꾀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우리 주위에 침범할 수 없는 정밀靜謐의 기근氣根을 심어서 그 위에 깊이 있는 사려思慮를 쌓아올려 보려는 갈구渴求를 즐겁게 그려가는 화폭 속에서 찾아 내 몸에 익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직本職의 화가들에게는 열락보다는 창조의 고민이 무섭도록 엄습해 들 것이다. 창조란 상상의 비상한 도약이기보다는 더욱 고심참담苦心慘憺의 정수精髓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고래로 才氣와 詩情, 예술성과 감수성과 창조성이 발달한 민족

언젠가 화재로 소실된 판잣집에 피아노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고소苦笑한 일이 있는데, 피아노를 친다면 그다지 놀라지 않는 사람들도 유화를 그린다면, 그래요? 하고 눈이 둥그래지는 걸 많이 보았다. 아마도 그림 그리는 것을 특수한 기술로 아는 모양이다. 사실 타고난 재질 없이는 화가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고래古來로 재기才氣와 시정詩情과 예술성이 매



김세중 조각가가 제작하여 기증한 김종필 흉상-지금도 청구동 자택 식당에 놓여 있다.

우 풍부하고 미美에의 감수성이나 창조성이 펍 발달된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역사가 불행하게도 대륙세력과 대양세력의 간단없는 침범으로 점철되어 오면서 어느덧 비뚤어진 감성이 우리 민족성에 결들이게 되어 포용성은 좁아지고, 자신을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피동적 생활태도가 또한 적잖이 창조성을 위축시키면서 감수성이나 우아성優雅性은 좀 먹혀 진·선·미의 전통적 가치체계까지 그 조화를 잃게 되고, 독주獨走나 파행에 떨어지게 되는 듯싶어 자연 심회도 울적해지곤 한다.

캔버스에 화필을 놀리면서도 문득 ‘정치는 예술’이라고, 높은 차원의 조화를 설파한 희랍 고언古諺을 되뇌곤 하는 나와, 캔버스 속의 즉물성卽物性和 대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동시에 의식하면서 다시 끝없는 상념을 좇고 있는 제3의 자신을 찾아내곤 진실로 어이없어 할 때가 있다. <JP 칼럼에서 전재>